

탐라의 개국신화

제주도에는 옛날 탐라왕국이라는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 탐라왕국의 시조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다. 삼성혈에는 탐라인의 뿌리를 보여주는 삼성신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삼성로 | 제주시 이도1동 1091-11 ~ 제주시 일도2동 985-2(약 1.4km)

신산로 | 제주시 일도2동 362-23 ~ 제주시 일도2동 994-24(약 1.1km)

신선길 | 제주시 일도2동 1029-122 ~ 제주시 일도2동 1028-21(약 0.3km)

성지로 | 제주시 이도1동 1516-1 ~ 제주시 일도2동 1027-5(약 0.8km)

오현길 | 제주시 이도1동 1692-18 ~ 제주시 이도1동 1352(약 0.9km)

동광로 | 제주시 이도2동 1176-84 ~ 제주시 건입동 623-5(약 2.1km)

서광로 | 제주시 연동 2493-5 ~ 제주시 이도1동 1774-3(약 3km)

고전길 | 제주시 이도1동 1707-9 ~ 제주시 이도1동 1529(약 0.4km)

돈내길 | 제주시 이도1동 1258-4 ~ 제주시 이도1동 1240-2(약 0.5km)

삼성로/신산로/신선길 | 삼성혈

삼성혈 앞을 지나는 **삼성로**는 유서깊은 제주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름이다. 제주는 먼 옛날에 탐라라는 독립된 왕국이었다. 탐라국은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땅에서 솟아나 나라를 세웠다고 전하는데, 이 세 명의 시조가 솟아올랐다는 곳이 삼성혈이다. 우리나라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로만 여기곤 한다. 그에 비해 고·양·부성씨의 자손들은 신화로 전해오는 삼신인을 그들의 조상으로 정성스레 받들고 있다.



삼성혈

문헌에 기록된 삼성신화에 따르면 삼신인은 삼성혈에서 솟아난 후 벽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세 명의 공주를 성산읍 온평리의 바닷가인 황루알에서 만나 혼인지에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활을 쏘아 각각 지낼 곳을 결정했다. 그 때 쏜 화살이 꽂힌 돌을 모아놓은 것이 화북동에 있는 삼사석이라고 전한다. 이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탐라인의 뿌리를 설명하는 시조신화가 되었다.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도 삼성혈을 찾아 제사를 지낼 정도로 삼신인의 이야기는 신화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오랜 역사를 증명해주었던 곳이다. 삼성혈 주변은 도시 개발로 인해 아파트와 집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는데 반해 삼성혈 안은 수백 년 된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마치 도심 속에 마련된 휴식처 같은 느낌이다. 이곳에는 삼신인이 솟아난 세 개의 구멍이 보호되고 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구멍에 만든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삼성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아보자. 이곳에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제주 사람들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자연과 인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삼성로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신산로**를 만난다. 이 길은 옛 지명인 신산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지형이 신선이 바둑을 두는 모양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부근을 신산마루 또는 신산마루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근방의 마을을 신산마을이라 했다. 성지로와 **신산로** 사이에 나있는 **신선길**도 이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신산로** 인근에는 신산공원이 조성되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고, 신산공원 남쪽에 있는 제주문예회관은 제주

도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지로 | 제주성지



제주성지

삼성로 북쪽으로는 제주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주성지가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길을 **성지로**라고 한다. 제주성은 옛날 제주목관아 주변에 방어를 위해 세운 성벽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쌓아올렸던 성은 동, 서, 남쪽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다. 성문이 있던 곳은 동문로터리, 서문로터리, 남문로터리처럼 지명에 남아있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성의 형태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제주항을 조성하면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성벽을 사용하여 지금은 일부분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옛 흔적을 되살리기 위해 제주성지 주변에는 옛날의 성벽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오현길 | 오현단



오현단

삼성혈 입구에서 관덕로까지 이어지는 **오현길**은 제주에 영향을 준 다섯 현인을 기리는 오현단을 의미하는 길이다.

지금 오현단 자리는 예전에 굴림서원이 있던 곳이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에 목사나 방어사 또는 유배인으로 왔던 인물 중 존경할만한 다섯 명을 꼽아 오현이라 칭하고 굴림서원에 배향했다. 오현은 충암 김정, 동계 정온,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을 말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학식있는 사람들에게

굴림서원은 꼭 한 번은 들러야 할 명소였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굴림서원도 철거되고 만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유생들은 작은 돌 다섯 개를 비석처럼 세워 매달 초하루에 향을 피우며 그 뜻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 후로 이곳을 오현단이라 부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제주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동광로/서광로/고전길/돈내길 | 광양

삼성혈 남쪽 지역은 땅이 넓은 곳이라 해서 광양(廣壤)이라 불렀다.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동광양과 서광양으로 마을이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광양을 지나는 길은 **동광로**, 서광양을 지나는 길은 **서광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빛이 잘 드는 마을이라는 뜻의 광양(光陽)으로 쓴다. 광양에는 재미있는 의미의 길 이름도 있다. **오현길**과 중앙로 사이에 있는 **고전길**은 정원에서 중국 고전이 발견된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동광로 남쪽에 나란히 이어진 **돈내길**은 옛 지명인 돈물래를 부르기 좋게 바꿔 붙인 이름인데 돈물래는 단물이 흐르는 하천이라는 설과 돼지들이 마셨던 물이라는 설이 전한다.